

사무엘상 10.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사울 (삼상 9장 1-27 절)

들어가기

사무엘상 9 장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사울의 집에 암나귀 하나를 잃어버리게 하시고, 이를 계기로 사울이 사무엘을 찾아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사울이 사무엘을 찾을 것이란 사실을 미리 사무엘에게 알려 주시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미리 준비시키도록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은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성급히 왕을 요구하며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며, 특별한 섭리로 이스라엘을 지키시며 역사해 주셨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고 발견하게 됩니다.

1. 사울의 가문과 사울의 성품 (1-5 절)

1) 사울의 가문 (1 절)

- ①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스의 아들이었습니다.
- ② 특별히 사울의 아버지는 ‘**유력한 사람**’ 이었습니다.

-> 유력하다’는 뜻은 ‘재산이 많고, 정신력이 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했다’는 뜻

■ 참고: 당시 베냐민 지파가 가진 땅과 부는 다른 지파 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았을 것!

- 여호수아 18 장 11-28 절 -> 베냐민 지파가 분할 받은 땅:
- 사사기 20-21 장의 베냐민 지파의 몰락 -> 그때 남은자의 수는 오직 600 명!

곧 사울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경제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좋은 환경에서 자라난 사람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었습니다. (2 절)

- ① ‘준수한 소년’이란 말은 원어적으로 ‘빼어나고, 잘생긴’ 소년이었다는 말입니다.
- ② 그런데 성경은 당시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었다고 기록했습니다.
- ③ 또한 그의 신체 조건도 남달라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다고 기록했습니다.

3) 그렇다면, 사울의 성품은? (3-5 절)

- ① 부모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아들 -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오라는 말에 그대로 순종’
- ② 맡겨진 사명에 충실한 사람 - (결코 게으르거나 불성실한 사람은 아니었다)

■ 4 절을 주목해 보자!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 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 ③ 예의가 분명한 사람 - 7 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을 생각하는 사람!’
- ④ 겸손한 사람 - 10 절, ‘사환의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

⑤ 그러나 성격은 그리 대범하지 못하고 겁이 많았던 사람이었던 듯

■ 5절 주목해 보자.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 **생각하기 1. 그렇다면, 지금까지 소개된 사울의 성품을 볼 때, 당신이 드는 생각은?**

(만약, 사울에 대해 추가되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어떤 내용이면 좋을까?)

2. 사무엘을 찾자는 사환의 조언에 사무엘을 찾아 나서는 사울 (6-10 절)

1) 모든 일이 허사로 끝나갈 때, 사환은 사울에게 사무엘을 찾아가자고 조언하였습니다. (6 절)

■ 특별히 6절을 주목해 보자. - ‘사무엘을 보는 사환의 관점’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곧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존중히 여김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의 말은 반드시 응하기에, 그를 통해 갈 길을 찾아야 할 것이라 사환은 믿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 사환의 자세를 통해 깨닫게 되는 몇 가지 사실들.

- ① 목회자를 보는 현대인들의 관점과 연약한 목회자들의 삶
- ② 목회자만이 아닌 모든 성도가 세상에서 사무엘처럼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
- ③ 잃어버린 나귀 한 마리를 찾기 위해 포기하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까지 생각하고 찾는 사환을 보며, 잃어버린 한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고 찾고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

3)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드릴 예물로 1/4 세겔을 준비하였습니다. (7-8 절)

■ 참고 : 개인적인 견해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당시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거나 예언을 해 주고 따로 돈을 받거나 대가를 요구했다고 간혹 잘못 생각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이 따로 예물을 준비하려 한 것은 당시 일반적으로 윗사람을 만나거나 예를 갖추어 누군가를 만나야 할 경우 자연스럽게 선물을 준비하던 관례를 따른 것이라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사울은 처음부터 이 돈을 준비하려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4) 선견자와 선지자의 용어 변경 (9 절)

-> 후기 사무엘상을 읽는 성도들을 위해 선지자가 예전에는 선견자가 불려졌던 것을 설명..

5) 사환의 조언을 옳다고 받아들인 사울은 사무엘을 찾아 나섰습니다. (10 절)

-> 사울은 자기 생각이나 고집을 강요하지 않고, 종의 충고도 들을 줄 아는 열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사실!

-> 그러나 이후 사울은 사무엘을 비롯해 그 누구의 충고도 듣지 않는 사람이 되어 버렸다!

3. 소녀들의 도움으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사울. (11-14 절)

1) 소녀들은 사무엘이 산당에서 곧 축사할 것이니 빨리 올라가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11 절)

■ 참고: 지금 백성들이 모여 제사를 드린 산당이란?

여기서 등장하는 산당은 바로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에 있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던 제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공식적인 예배장소와 그 여건이 중단 되었을 때, 때에 따라 개인적인 제단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항상 교제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당시는 아마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로의 하나님의 집이 무너지고 아직 법궤도 제자리를 찾지 못한 상태였기에 사사요 선지자로 활동하던 사무엘의 집이 있던 라마에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은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그의 백성들과 끊임없는 교제를 원하신다는 사실이고,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 거룩한 삶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2) 백성들은 사무엘이 제물을 축사하기 전에는 결코 음식을 먹지 않았습니다. (13 절)

-> 사무엘이 제물을 축사한 것은 감사기도 내지는 요즘의 식사기도라고 표현 할 수 있을 것..

4. 그런데 사무엘은 사울이 올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15-18 절)

1) 15 절에 ‘알게 하다’ 라는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귀를 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 마치 사무엘의 귀에 속삭이듯 사무엘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알게 하셨다는 것!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도 그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녀들에게 귀를 열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가 됩시다.

2)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신 사울에 관한 내용은? (16-17 절)

- ① 내일 이 맘 때에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이 올 것
- ②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을 것
- ③ 그가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할 것

✚ **생각하기 2.**

그런데 16 절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을 세우도록 허락하신 이유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저들을 돌아보셨기 때문이란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번에 왕을 요구하는 이스라엘의 간구를 합당하게 여기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금새 바뀌신 것일까요? 어떻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3) 사무엘을 만난 사울은 그가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18 절)

18 절, “사울이 성문 안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선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 **생각하기 3. 그럼 왜 사울은 사무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5. 사무엘은 자신을 찾는 사울에게 산당으로 올라가게 하였습니다. (19-21 절)

1) 성도의 삶의 특징이 있다면, 그 어떤 세상의 염려와 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우선권을 두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 장 33 절)

■ 곧 암나귀를 찾는 것에 모든 관심이 사로잡혀 있던 사울에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도록 사무엘을 그를 제단으로 올라가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2) 사무엘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사모하는 자가 될 것이라 예언해 주었습니다.

① ‘사모하다’ 는 말의 뜻은 ‘기쁨, 보배로움, 아름다운’ 이라는 뜻으로 그가 이제 이스라엘의 온 기대를 받게 될 것이란 뜻입니다.

② 이것은 곧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란 의미였습니다.

3) 이에 사울은 자신이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미약하고 낮은 자라고 고백하였습니다. (21 절)

-> 지극히 겸손한 사울의 모습이 아닐까?

-> But! 그의 마지막은 권력욕에 사로잡혀 이스라엘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

6. 사무엘은 사울을 방으로 들인 후 환대해 주었습니다. (22-24 절)

1) 사울을 잔치 자리의 상석에 앉게 하였습니다.

-> 자신의 자리를 양보한 것!

-> 이는 곧 앞으로 사무엘의 지도권을 사울에게 이양시킬 것을 암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사울에게 고기의 넓적다리 부분을 주어 먹게 했습니다.

-> 그곳에 모인 사람들보다 사울을 의도적으로 더 높여 주었다는 것..

여기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뜻 앞에서 자신의 모든 기득권과 자존심을 다 내려 놓고 순종하며 따르는 아름다운 경건의 모습을 발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7. 사무엘은 사울과 따로 시간을 보내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25-27 절)

1) 여기서 주목할 반복적인 표현 =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따로 세워..’

2) 의미 있는 장면 한가지.. 27 절 주목..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환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환이 앞서가므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네게 들려 주리라 하더라”

■ 이때부터 사울은 하나님의 대언자인 사무엘의 말을 들으며 그가 전해준 내용에 대해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 그의 삶이 결정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 오늘도 마찬가지로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단 한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때부터 긍정적으로 순종하는 것! 이란 사실입니다.

참고: 마태복음 7장 24-27 절,

24.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25.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26.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 **생각하기 4. 오늘 내용 중에 새로 깨달은 것이나 나누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